

진정 노동자가 인간적 대접을 받으며 살수있는 날은 언제인가.

취직식을 보면서 웬지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커다란 서글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웬일인가. 한쪽에선 안정속의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한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동자는,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한국광전자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고 구사대에 의해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겨울날 찬물세례를 받고 현장밖으로 쫓겨났다.

한국광전자는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로 이리에 7여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장이 재일교포인 광그룹 산하 회사이다.

한국광전자 노조는 88년 회사에 발생한 화재로 당시 21살, 24살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과 전신화상등을 입는 열악한 근로조건개선과 인격적 대우를 받기 위해 9월14일 설립되었다.

설립초기부터 회사는 노조를 인정치 않음은 물론 조합활동조차 못하게 하여 노조 설립5년차인데도 단

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근로조건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중엔 조합활동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퇴근후 개인시간으로 조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노력으로 92년 임금인상 시기를 거치면서부터 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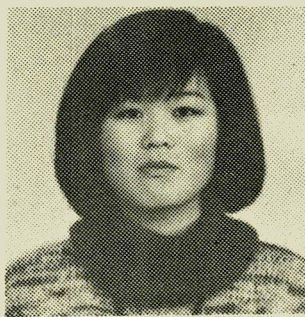


아직도 우리는 추운곳에 있다

조합원이 늘기 시작하였다.

이를 눈치챈 회사는 노조를 없애려는 의도로 92년 10월31일 상사명령 불복중등을 내세워 쟁의부장을 해고시켰고 두달후 조합활동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위원장과 교육부장을 93년 새해첫날 해고시켰다.

위원장과 교육부장의 해고는 한국광전자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노동자답게 당당히 살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주의 횡포였다. 충격과 분노를 갖고 조합원들은 해고철회와 단체협약 체결,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5차에 걸쳐 협상을 요구하



였으나 회사는 단 한번도 응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찬물세례와 함께 정문밖에 내몰고 남자관리자를 이용한 무자비한 구타와 설날분 상여금을 떼어먹고 부모님들에게 노조비방 전화와 편지를 보내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갈라

놓고 5년 근무한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32만원인데도 조합원 개개인에게 4백~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업무방해란 구실로 고소를 해놓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맞아 한국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야 한다고 하면서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기업을 우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산업평화와 발전을 위한 길은 1천만 노동자 아닌 2천5백만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밥줄근길 것 걱정없고 조합활동 당당히 할수 있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확고히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정 노동자가 인간적 대접을 받으며 살수있는 날을 만드는 것은 한국광전자 노동자들처럼, 이땅에 억압받고, 소외받는 우리 노동자들이 당당히 인간적 삶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영옥

〈한국광전자노조위원장〉

의 과제라고 하는 이 시기에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노조가 있으면 회사는 망한다. 노조는 반드시 깨야 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우리 사장은 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기업인의 윤리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화합하고 국민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

노조창립을 축하합니다

롯데월드노조(883

11) 한산공영노조(88313) 경기은행노조(7439) 지역의료보험제주지역(88311) 전주원에농협노조(90312)